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노원 주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중1 친구들과 고2 친구, 그리고 선생님 두 분이 몽골단기선교를 갔어요. 많이 자리가 비워져 보여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드니 전혀 비워져 보이지 않아요! “전도사님, 사이비이여~?” 라고 하지 말고ㅋㅋ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한번씩 연락 해주길 바라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2~1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험과 환난이 인생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릴 찾아주시는 방법이니 감사하고 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지난 주 설교 내용에서도 악한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해야 할 공부와, 효도 등 그리고 술, 담배, 게임, 마약, 중독, 야동 등 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시험의 결과, 그 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왜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받는지 알아보시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겨내면 복준다는 말을 듣다보면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 왕변태.. 무슨 고난 받고 돈 주는 것두 아니구! 하나님 이상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한테 라면 끓여달라 했는데 친구가 바지락 무국 끓여 놓으면 뻑치잖아요. “너 T야?” 하고 싶잖아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고난과 시험입니다.

예화1) 옛날에 어느 마을에 성혁이랑 강현이가 살았어요. 변성혁이랑 원강현이란 친구데, 그 마을 옆에는 큰 숲이 있었어요, 다양한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을 사랑하며, 가꾸며 심는 활동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말하길 큰 폭풍우가 하필이면 그 숲을 지나간 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숲의 꽃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태이핑도 하고 골뎀지로 막기도 했다만 결국에는 싸그리 난장판이 되었다고 해요. 결국 다 초토화 되고 성혁이랑 강현이는 광광 우럭따 해버렸어요. 그러나 성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이거 폭풍이 지나갔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심고 가꾸면 그대로 자란다는 말이네” 결국엔 나무를 심고 꽃을 기르더니 그 숲이 전보다 더욱더 아름답게 형성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폭풍우와 같은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욕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 제가 저 놈 함 참교육 드가도 돼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응, 그래도 죽이진 마라. 그런 권한은 나한테 있다”, 하셔서 마귀가 “자~ 드가자~” 라고 한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은 좀 제가 말씀드렸던, 혹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거와 다릅니다. 같이 읽어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의 원인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각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내서 고난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거예요. “얼씨구, 나 없지 지혼자 욕심내서 내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하더니 결국 넘어졌네? ㅈㅈ 내가 나서야겠군! 애야! 나 여기있어! 나를 의지하고 쫓아오면 승리한단다!” 하는 분이시지, “아따. 오늘은 누굴 괴롭혀볼까~? 오늘은 누굴 놀려먹어야 내가 재미를 보려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하냐면 오늘 본문 12절이나 13절에 나오는 ‘시험하다’의 원어가 ‘페이라스모스’예요. 근데 이것이 12절에서는 시험하다이고, 13절에서는 유혹하다는 겁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말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 바쳐봐라, 모세가 백성들의 반란과 불순종에 대한 시험, 출애굽 했을 때에 물 부족 현상과, 홍해직면의 문제 등 큰 시험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 시험은 12절에서 “시험하다”에 포함되는거예요. 12절 읽어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시험은 믿음과 신앙에 대한 테스트예요.

여러분들 공부하고 시험 보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어요.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애가 잘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찾으시 테스트 해야겠다! 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 테스트를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테스트 중에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니까 정말로 하나님 찾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끝나서도 면류관, 즉, 왕관, 크라운, 여러분들 클래시 로얄에서 “하하!” 하는 그 왕의 왕관처럼 명예와 복, 물질 등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통 중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은혁아! 서영아! 하영아! 명보야! 현보야! 내가 널 위해 죽었다. 근데 넌 왜 날 못 찾니 왜 날 버려두니! 왜 다른 걸 나보다 우선으로 두니 왜 좌절하니” 이렇게요. 여러분들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왜 평안한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가세요? 그거 바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들 다 3학년 될 나이에 저는 늦게 신학교를 신입학 했어요. 그러면 형/오빠/선배 대접해줄거 같죠? 절대 안그래요. 나이는 먹었고, 신입생 되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무시하고요 모든 활동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니 신학대인데도 그렇다고요? 어우 난 안가야지” 이걸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 당신은 전도사니까 평안하고 돈 받고 밥 얻어무꼬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고통과 인내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희 집이요. 실내온도가 35도예요. 밤이면, 낮이면 37도 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 월세 없어서 에어컨을 못틀어요. 2학기에는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휴학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통비도 없어 교회 오는데도 동기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나 불쌍하니까 돈 달라? 그거 아닙니다. 이런 시험을 다 이겨야 정말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시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만나기 위한 빌드업이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험은 제가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기 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하는 한 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제가 무너질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볼거 해보고 대학 가보고 했어도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어른 분들이 보면 콧방구 찔 정도로 고난 당한 것도 아닐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당

못할 고난 절대 안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학 시험 망했어도, 여러분들 그것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13절은 무슨 시험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유혹에 관한 시험을 말하는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3대 욕구 아세요? 성욕, 생존, 안전이라고 보는 입장이 가장 적당한거 같아요. 성욕은 다 아시다시피 생식과 번식의 욕구, 생존은 식욕 등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욕구, 안전은 집, 차 같은 욕구를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부분 사망한다, 죄의 길을 걷는다. 지옥 간다 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13절에서 말하는 이 욕구에 관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은 우릴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고 했죠? 이처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들 이렇게 욕구에 끌려 나간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나의 구세주임을 전하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번엔 러시아가 전쟁 왜 일으켰어요. 땅 넓히고 영향력 넓히려는 속셈으로 침략했죠? 정치인들 왜 감옥가요? 돈 벌려고, 돈욕심 때문에 명예욕심 때문에. N번방 사건이 왜 일어난거죠? 그 성적욕구를 이기지 못해서요.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된단니까 그 권능욕이 이런 대참사를 일으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기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거 다 죄로 환원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시간에 탄짚하고 싶은 욕구, 나대는 친구 패고 싶은 욕구, 쌍욕 박고 싶은 욕구, 교회 안나오고 자고 싶어하는 욕구 전부다 여러분들이 무찔러야 할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힘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주십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구가 생기면 서로 공유하기로 해요. 어떤 욕구인지는 부끄러워서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욕구가 생기더라도 주기도문을 한번씩 올려보는거예요. 그렇다면 많이 괜찮아질거고 힘이 날거고 서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당한다고 남탓하지 말고요. 유연한 사고와 남탓하지 않기의 마인드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